

□ 미국 소비동향

○ 소비자 선호 품종

-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선호 품종을 보면, 미국 배는 Bartlett, D'Anjou, Bosc 같은 대표 품종을 선호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확 후에도 보관만 잘하면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아시아 배를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시아 배는 재배 품종이 다양화되고 또한 소비 수요가 늘면서, 한인교포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수요가 미국 농산물 업체들과 생산업체들까지 확장되었음. 미국 아시아 배 생산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품질도 많이 향상되어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Bartlett	43%
D'Anjou	17%
Bosc	15%
Asian Pear	9%
그외	< 1%
선호품종 없음	16%

자료: The Packer (2012.2.11)

○ 배의 원산지별 선호도

- 신고배

-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고배는 한국, 칠레산이지만, 출하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칠레산을 선호하며, 겨울과 봄에는 한국산 신고배를 선호함. 칠레산이 나오는 시기는 2월말에서 3월초인데, 이때 한국산은 상태가 좋지 않고 가격도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칠레산은 3월에서 5월에 가격이 가장 높는데 여름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이 여름 과일을 찾기 때문에 아시안 배의 소비는 많지 않음. 한인들은 디저트나 간식 보다는 여름음식인 냉면과 김치에 사용하므로 식당이나 소매상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음

- 미국산 신고배 역시 9월이 되면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므로 수입되는 추석용 신고배가 부족한 시기에는 미국산 호수이와 아타고가 많이 유통되고 있음. 신고배는 작은 사이즈가 유통되다가 최근 들어 9-10개입 사이즈가 출하되고 있으며, 호수이는 12-18 사이즈가 많이 유통되고 있음

- 미국인들은 큰 사이즈의 과일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데, 먹기 편하고 또한 쇼핑하기에 편리한 12-14 사이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황금배

- 중국산 아리배 수입이 금지되면서 한국산 황금배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이 한국마켓을 많이 찾고 있음. 신정을 전후로 한국산 황금배가 많이 소비되는데, 현지 중국 도매상들도 한국 도매상을 통해 황금배를 구입하고 있음